

# Craig Keener 박사, Matthew, 강의 11, 마태복음 10-11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1회기 마태복음 10-11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질병과 영과 폭풍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신 장면을 읽습니다.

우리는 세 세트의 기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말함으로써 분리되어 사람들이 그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권유합니다. 세 가지 기적 이야기로 구성된 이 세 번째 세트 이후에 우리는 예수께서 추수할 더 많은 일꾼들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권위를 표현하신 것에 대해 읽게 됩니다.

산상수훈에 앞서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요약하셨듯이 병든 자를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은 9장 35절에도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36절에서 예수님의 동기와 동정심에 대해 읽습니다. 내 백성아,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으니라. 그는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제 그 언어는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나타나며, 특히 양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에스겔 34장에서 나타납니다. 목자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그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의 백성을 목양하십니다.

그러나 37절을 보면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작업은 단순히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배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20일 동안 매일 두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당신은 40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이를 곱하면 훨씬 더 큰 숫자를 얻게 됩니다.

글쎄, 예수님, 그는 성육신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필요는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는 추수할 일꾼을 늘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사명을 완수하려면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38절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추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일꾼은 누구일까요? 자, 10장에 이르면 수고가 샅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할 때 수고를 위해 기도하는 바로 그 수고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일한 그리스어 용어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마태복음 전체를 똑같은 양으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정이 매우 길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다루겠지만 완전한 세부 사항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마태복음 9:35부터 38절까지가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수행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는 왕국을 선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들에게 영을 다스리고 치료하는 권세도 줍니다(1절). 그리고 그는 12명의 사도를 임명합니다.

사도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선교학자 및 기타 사람들은 종종 교회 개척 등의 측면에서 사도적 사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사도들은 단지 12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복음서는 보통 이 용어를 12장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실제로 바울 서신에서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대의 논쟁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분명히 12명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견되고 위임받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포스텔로가 분명히 아포스톨로스를 형성하는 동사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모두 사도 라고 불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위임받은 사자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임명된 사자인 쇼리아크 에 대한 유대인의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랍비 문헌에서 이것은 메신저가 결혼을 주선하고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기능입니다. 그들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엇을 하도록 위임받았는지 그것이 그들이 가진 권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랍비 문헌이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sholiach 에 대해 그것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보내는 사람이 위임한 메신저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잠언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세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언어가 나오는 곳마다 일반적인 개념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나 sholiach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apostolos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단지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작업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 전송자에 의해 위임되고 승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왜 12인가요? 아마도 이스라엘에는 열두 지파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열두 별자리 등등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른 것들과 연관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이 열둘을 보내십니다. 왜 그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개념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까? 사해 두루마리는 또한 열두 지도자 그룹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갱신 운동,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의로운 남은 자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사명을 상징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으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열심당원 시몬도 있습니다. 둘 다 시몬이라고 부를 수 없고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이러한 이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열심당원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이름은 James였습니다. 사실 제임스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것의 영어화된 버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Yaakov, Jacob, 그리스어로는 Yakobas 였습니다. 영어로 Jacob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야곱을 야고보로 번역한 것처럼 들리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명의 야곱이나 두 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다는 또 다른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유다(Judas)는 유다 지파인 유다(Juda)와 그리스어 형태로 같은 이름이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실제로 두 명의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제 가롯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그를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구별시키는가? 글썄, 그것은 논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시카리족 중 한 명인 단검 인간 유다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마도 가리옷 사람인 이스가리옷을 의미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리옷이라는 곳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장소, 그 이름의 마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 이상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마리아가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반부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당시 유대교에서, 당시 유대와 갈릴리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로마나 아테네에서 이 이름을 지어냈다면 유대와 갈릴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을 생각해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초기의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시대의 일반적인 이름이었으므로 그 시대와 장소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서 전통에 그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명, 즉 예수님의 대리인의 사명으로 보내십니다.

초기 사명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됩니다(5절과 6절).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단기적인 우선순위였습니다. 그것은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로 다시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글썄요, 그것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0장과 6절, 에스겔 34장 12절의 언어를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성경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분의 사명은 성경의 정신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부분적으로 인종보다는 지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글썄, 그것은 이방인 도시로 이어지는 길 또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갈릴리는 북쪽의 이방인 도시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갈릴리 밖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임무를 갈릴리로 제한합니다.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않는다면 이방인의 도시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갈릴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에서 구체적으로 취소된 유일한 명령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사명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를 위한 모델이지만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메시지 측면에서 우리는 연속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3:2 에서는 세례 요한의 연속이고, 4:17 에서는 예수님의 연속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제자들은 왕국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요소는 표징인데, 이는 10절과 8절에서 인증의 한 형태를 구성합니다. 음, 이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9:35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왕국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으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표현입니다. 그것은 9:36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동정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10절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예수님의 대리인들이 단순하게 살고 있음을 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일부 서클이 있고 특히 1950년대 이래로 오늘날에는 치유를 번영의 가르침과 연관시키는 일부 서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에게 풍부한 부와 기타 다른 것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그것을 설교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글썄요, 그 협회는 1950년대쯤부터 존재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단순히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행하시는 데만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에서 아타나시우스가 기록했듯이 성 프란치스코와 성 안토니오가 특히 그런 일로 유명하다는 것을 종종 봅니다. 또한, 실화는 아닐 수도 있지만, 중세 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황이 역사상 더 부패한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교황이 중세 가톨릭 학자 중 한 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썄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듯이,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풍부합니다. 이에 학자는 대답했습니다. 교회도 여전히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농민들은 종종 망토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여 겉옷 한 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행을 단순히 냉소주의자에 비유했지만, 냉소주의자도 가방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견유주의자들보다 더 간단 합니다. 요세푸스는 에세네파가 여행할 때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다른 에세네파의 환대에 의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대는 그들이 여행한 곳에 다른 유대인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예를 볼 수도 있는데,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모든 청중이 볼 수 있었던 가장 분명한 예이며, 국가적 배도 시대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보여준 예였습니다.

광야의 엘리야, 엘리사는 다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도 물질적인 소유를 얻으려고 애쓰는 게하시를 책망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행할 때 보호를 위해 지팡이를 가져갑니다. 좁은 산길에서도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뱀을 보면 머리를 때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주 가볍게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자, 풀은 여행을 할 때 여러 곳에 머물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예정이라면 일을 하겠지만, 그는 매우 단순하게 여행했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아주 단순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과 사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자주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등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 지불할 가치가 있는 비용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볍게 여행해야 했습니다(10장 10절과 11절). 고대에는 환대를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격을 증명하기 위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밤새도록 올려 놓으면 잠에서 당신을 빼앗을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특히 19세기에 실제로 선교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George Mueller),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도록 했을 것입니다. 자, 나간 초기 신앙 선교사들 중 일부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오늘날 많은 선교는 일을 합리화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생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며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통해 일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콜카타에 있는 한 아이에게 한 달에 15달러를 지불하고 음식과 학교를 제공하기 위해 콜카타에 있는 한 아이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한두 달쯤 그렇게 하고 나니 수입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수입을 모두 잃었을 때 내 주머니에는 10달러가 있었습니다.

나는 식료품 구입에 9달러를 썼다. 나에게 1달러가 남았고, 몇 주 후에 15달러를 보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지 물러나 허드슨 테일러처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나에게 25달러를 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나는 인도에 있는 아이에게 15달러를 보냈고, 식료품을 사는 데 11달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매달 나에게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듀크 대학교에 전화하기 전날, 이 때가 거의 같은 시기였습니다. 제가 듀크 대학교에 전화해서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려고 했던 바로 그 전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화할 준비를 하고 있을 당시에는 돈이 1달러밖에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할 돈이 없었습니다. 전화하려고 전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마다 그것을 얻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소명이었습니다. 신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교수가 되려면 박사 학위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내 박사 학위 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공급해 주셨고 마침내 저는 즉시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6월이 되었고, 학교는 9월에 시작했는데,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온갖 곳에 지원했지만 자리가 없었어요. 마침내 지금은 7월이고 일요일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 파일을 보관할 수 있을 만큼 큰 아파트를 갖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알아냈습니다. 성경 배경 등등 색인 카드에 다 들어 있었는데, 색인 카드가 수만 장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마련해 임대료를 낼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떠나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냈고, 그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기적을 행하지 않는 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InterVarsity Press에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오, 당신이 쓰겠다고 제안한 이 배경 논평을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당신에게

계약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달려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그것에 대해 사전 승인을 주었습니다.

그해에 살기 위해 전날 밤 내가 결정한 금액은 달려였습니다. 나의 큰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지켜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큰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글썄요, 풀이 해냈습니다. 지지울 올리는게 잘못된건가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지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또한 12절부터 15절에서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자들에게 대한 반응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인사는 사회적 예절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인사할지 등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길에서 인사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보통 살롬이었습니다. 이는 유대 민족의 기본 인사로서 평화가 함께하기를 의미합니다. 살롬 알레이헴.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평화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될 것이라는 의미의 평화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의미에서였습니다.

마치 영어로 God bless you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인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처럼 축복처럼 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장소에 가서 그들에게 이 축복을 제공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지를 받으면 축복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매우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지에 들어갈 때 발의 먼지를 떨어져 그것이 불경스러운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 마을과 마을들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을 욕되게 하여 소돔보다 더 심한 재앙을 받게 되리라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는 박해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자료 중 일부가 다른 장소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마지막 때의 고난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도 이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사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어떤 곳은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고 기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은 너무 익었어요. 나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여 추수가 너무 익어서 땅에 떨어질 것 같은 곳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6절부터 20절을 통해 박해에 직면하여 추종자들에게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의 추종자들을 이리 중의 양으로 묘사하십니다. 모두가 친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들이 무방비 상태로 악명 높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대적으로 무력한 존재로 묘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적 중 일부는 우리보다 더 강력할 것이며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 유대교 문헌에서는 때때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포식자 중의 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포식자 중의 양으로만 묘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양들이 포식자들 사이로 보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임무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육체적 고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는 지방 법원의 반대에 대해 말합니다.

지방 법원은 종종 약 7명의 현지 장로에 의해 통치되었다고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제사장이었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지역 사회의 장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방 법원 등이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매를 맞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회당에서 구타가 행해진 방식, 우리가 다소 나중에 나온 미슈나 전도지인 마코트에 많이 의존할 수 있다면, 구타가 행해졌던 방식은 일반적으로 송아지 가죽 끈과 끈을 엮어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등을 26번, 가슴을 13번 때렸습니다. 공격수가 당신을 때릴 수 있는 것만큼 세게 말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먼저 옷을 벗긴 다음 기둥에 양쪽으로 묶어서 그 방향으로 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이 기간, 즉 39번의 속눈썹에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는 채찍질을 40대 이상으로 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0을 넘지 않도록 법을 둘러싸는 울타리로서 그들은 최대 39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39번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는 바울이 회당과 계속해서 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당에서 계속 봉사했는데, 어떤 회당에서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육체적 고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갈릴리에서의 초기 선교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지 회당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 이방인 앞에서 말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다른 부분에서 이것에 대해 더 많이 기록한 것인데, 그가 우리에게 사명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두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우리 사명의 모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극하지 마세요. 그것을 열성적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을 때 항상 기뻐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말입니다. 아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18-20절).

그는 주지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글썄요, 빌라도만이 아닙니다. 유대 총독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 너머이며 확실히 총독의 통치를 받지 않는 갈릴리 너머입니다. 그곳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박해가 때때로 가족을 분열시키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그 때가 특별히 끔찍한 때로 간주되었으며 구약성경에서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Mishna sotha 에서 이것을 특별한 고통의 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지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박해가 계속될 것입니다(10장과 23절).

마지막 때에 관해 비슷한 유대인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10:24-33에서 박해받는 자들에 대한 약속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도 주십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서 담대히 전파하고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우리는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이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10장 29~31절.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든지 당신이 죽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푼에 팔리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당신의 아버지는 참새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참새들까지도 보살피 주십니다. 여기서 센트로 번역된 단어는 29절의 아사리온입니다.

그것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평균 근로자의 경우 한 시간 미만의 임금이고, 평균 근로자의 경우 30분의 임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새의 죽음을 알고 계시거나 명령하신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새에 대해서도 아신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30절.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어 두셨느니라. 그것은 머리털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구약성경의 일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셨으니, 우리 중 머리털이 적은 사람뿐만 아니라, 머리털이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머리카락을 다 세십니다. 이것은 변덕스러운 운명이나 행운에 대한 그리스인의 견해와는 상당히 다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코 알 수 없으므로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단지 변덕을 부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32, 33절. 만일 우리가 그를 시인하면, 그도 우리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을 돌로 치는 장면과 스테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운동 활동을 위해 가끔 그러곤 하지만,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처형할 때는 옷을 벗깁니다. 그런데 루크가 보고하고 있어요.

그는 그들이 옷을 벗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루크는 누가 정말로 유죄인지에 관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나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할 것이라고 말해야 했지만 스테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한 스테반에 관한 구절에서 그는 인자가 아버지 앞에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은 왜 서 있는 거죠? 그것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자세, 재판에서 증인의 자세였습니다.

예수님은 변호하기 위해 거기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자들은 거짓 증인들이요,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기를 거부한 순교자들에 대한 유대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다시 신성으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0:34-39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견줄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먼저 오십니다. 34-36절에서 우리는 가족의 반대에 대해 읽습니다.

젊은 부부는 대개 남자의 가족과 함께 지냈는데, 이것이 바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에 대해 읽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는 가장 일반적인 배열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가 7장 6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가족의 분열로 고난을 겪던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인 미쉬나 소타( Mishna Sotah ) 9.15에서는 가족의 큰 고통인 마지막 환난 기간 동안에는 종말 전에는 가족조차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예수님은 37절에서 우리 가족의 인정보다 그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비교하여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과장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을 통해 그 가르침을 하나로 묶는 방법에 역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을 통해 그분이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현자는 내가 너희 선생님이니까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부모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과장되게도 그 규칙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38절, 39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은 다음 십자가의 수평 들보를 처형 장소로 가져가야 했는데, 보통은 폭도들이 울부짖고 야유하는 가운데였습니다. . . 네가 네 처형 도구를 들고 부끄러운 벌거벗은 채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죽음을 향해 행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내가 그곳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까지 나를 따라야 합니다.

이야기는 그분이 우리에게 참을성을 갖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동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에서는 표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을 더 사랑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10장 40절에서 42절,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을 존중함. 대리인을 대하는 방식, 메신저를 대하는 방식, 전령을 대하는 방식, 당시 대사를 대하는 방식은 보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사자를 경멸했다면 보낸 사람도 그렇게 경멸한 것입니다. 당신이 메신저를 존경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보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와 사무엘상에서도 그들이 모세에게 한 일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한 것이니라.

또는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거절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나 사무엘입니다. 환대. 글썄요,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앞부분에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도시에 들어갈 때에는 환대에 의지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자기 집에 데려가게 하고, 그들이 당신을 데려가거든 거기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환대에 달려 있습니다.

10장과 11절. 일반적으로 그 문화에서는 환대가 최대 3주까지 지속될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환대는 다른 문화권보다 그 문화권에서 더 컸습니다.

미국을 방문했거나 미국 출신이라면 미국이 가장 친절한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옛날이나 시골 지역에서는 환대가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더 잘 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을 괴롭힐 것이라는 생각도 덜하고 그럴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러나 환대는 많은 문화권에서 가치입니다.

그것은 고대 지중해 세계 전체에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유대교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군대인 사르밧 과부에게 상을 주시고 그 아들까지 키우셨으며, 엘리사의 군대인 수냄 여인에게도 상을 주시고 그의 아들을 키워 주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나도 영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제자의 이름으로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것뿐이다. 때때로 그것은 농부들이 주어야 할 전부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준다면 그들은 보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 할 수 있는 것을 주고 복음의 사자를 환대하는 행위였습니다.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가져온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따라서 메신저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11장은 하나님의 사람의 의심으로 시작됩니다. 10장에서 우리는 거부된 일부 에이전트에 대해 읽었습니다. 자, 우리는 확실히 거절당한 사람, 세례 요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으나 결국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요세푸스에게서 알려진 것으로, 페레아에 있는 마케루스 요새입니다. 음, 그곳은 요르단 반대편에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 들었고, 그 때 11장과 3절에서 의심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의심했습니다.

무엇이 효과가 있나요? 치유? 엑소시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에서 우리는 왕국의 표적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11장, 2장, 3장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에 대해 읽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때 그는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양 문화에도 확실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양 학자들은 예수의 행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앞서 이러한 기적이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David Friedrich Strauss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제. 데이비드 흄은 실제로 기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David Hume의 전제에 따라 저는 앞서 David Hume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지금 그를 비판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옳아. 전제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흄의 가정을 받아들여 우연의 일치, 오진 또는 심신의 회복으로만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어떤 것들은 오진이고, 어떤 것들은 정신신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일들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심신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 질병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일부 회의론자들은 신적인 설명보다 가능한 자연적인 설명을 선호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지금은 그것에 대해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분명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즉,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믿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격자의 증언에 호소하십니다. 그분은 네가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 중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David Hume이 말한 것에 관해서 David Hume은 믿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증인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기적이 일어나든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기적에 맞서 통일된 인간 경험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는 균일하지 않지만 목격자를 상대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스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수억 명의 사람들과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비기독교인 배경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언급하십니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실명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가 언급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9장 27절과 28절에서 두 명의 소경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는 실명이 치료되었다는 보고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애인 걷기.

글쎄요, 9장 2절부터 6절까지에 그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Lisa Larios처럼 그 예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나병이 깨끗해지는 예. 앞서는 이에 대한 예를 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에서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예를 들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이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sbury Seminary의 내 학생 중 한 명인 Ebi Perenbaraj 는 원래 Bari Malto 였던 Barnabas Malto 라는 사람과 함께 일했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 말토는 무당이었으나 나병환자가 되었는데, 나병환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와서 바리 말토 를 위해 기도 했는데 곧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꿈을 꾸었는데, 꿈에 천사들이 바리 말토의 손을 만지자 그가 깨어나 보니 완전히 낫고 가더군요. 마을로 들어가 마을 전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 학생이 일하던 마을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

그곳에서 운동 초기에는 모금 등을 하여 지역의 절반이 개종하였다. 그러나 그는 기적이 초기에만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매우 좋은 일이었습니다.

음, 청각 장애에 대한 많은 예가 있습니다. 나는 앞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예, 모잠비크의 예 등을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예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신신체적이라고 간주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요한에게 행하고 있는 기적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말하기를, 너희는 이런 일들을 보았고, 이런 일을 들었고, 요한에게 이런 일을 말하라.

그러나 예수께서 요한에게 이러한 일들에 관해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언어는 그가 이것들을 무작위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왕국의 구체적인 표징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두 구절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내가 앞서 말했던 모든 창조물, 백합이 피어난 사막 등의 회복과 함께 이사야서의 문맥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의 표징, 예수님의 기적은 단지 무작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조만간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죽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것들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가올 왕국의 징조입니다. 특별한 기적을 얻든 얻지 않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됩니다. 이는 다가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탄식이 없고, 더 이상 울부짖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왕국이 이미 존재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왕국은 그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6절에서 요한에게 걸림돌이신 예수라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리를 이끈다. 왕국은 부서진 자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자들 가운데 먼저 오셨고, 소외된 자들 가운데서 사역하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기대한 것, 사두개인들이 기대한 것, 요한이 기대한 것조차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존은 왜 이 시점에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불은 어디 있지? 존은 두 번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하나님 자신 외에는 우리 중 누구도 전체 그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를 믿어야합니다.

존은 모든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시는 분이든 아니든 진리를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이 처형되기 전에 올 수도 있는 왕국을 정말로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존의 처형이 곧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셨습니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읽고 기적보다 더 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왕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비록 이생에서의 기적 자체가 영원하지는 않더라도 기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더욱 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적과 다른 모든 선물을 주기 위해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가장 큰 고통의 때, 가장 큰 고난의 때, 기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을 때, 정의가 가장 크게 왜곡된 것처럼 보였을 때를 봅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인으로 선고된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시 텐 붐(Betsy Ten Boom)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죽기 전에 여동생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이 더 깊지 않으실 만큼 깊은 구렁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과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도 이에 대한 약속이지만 십자가도 이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후에 세례 요한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 보려고 나갔나요? 음, 그것은 좋은 구약의 언어입니다.

갈대는 약한 것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대는 요한을 처형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주화에 새겨진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조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왕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제 우리는 그가 자신을 왕처럼 생각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요, 요한은 선지자요 선지자 그 이상이었느니라. 그리고 여기 그가 말라기 3.1절을 인용한 곳이 있습니다. 마크는 이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용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그 구절을 다른 곳에서 인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3.1. 나는 내 얼굴 앞에 나의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계속해서 와서 여호와와 의 날, 여호와와 의 날을 위한 길을 준비할 엘리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의 약속을 이행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3장 초반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요한이 엘리야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왕국은 요한보다 더 크다. 자, 그것은 John에 대해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John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비교에서는 때때로 나쁜 것을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고대 비교에서는 좋은 것과 더 나은 것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다른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로 강조하기 위해 특별히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은 선지자 그 이상입니다. 요한은 전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보다 크니라.

그러나 왕국에 속한 자들은 여자에게서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6절부터 19절까지 문화 속의 청중들을 버릇없는 아이들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겠습니까? 글썄, 이들은 우리가 플루트를 연주하고 있다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춤을 춰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만가를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애도해야 합니다. 즉, 우리와 함께 플레이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덕스럽게 그들의 음악을 바꿀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사람들이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플레이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글썄요, 존은 좀 더 금욕적인 방식으로 왔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들꿀과 물 외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음,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선지자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받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죽음. 그래서 그들은 존이 죽어도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먹고 마시러 오셨습니다.

아, 탐욕스러운 남자와 술고래. 음, 그것은 신명기 21장에 대한 암시입니다. 탐식하고 술고래인 반항적인 아들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죽음.

그래서 그는 당신이 버릇없는 아이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려고 하셨지만 당신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만, 당신은 그 반대의 이유로 그것을 무시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 애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이것은 단지 심판을 선언하는 시적인 방법이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사야가 모압의 멸망을 애도하거나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애도할 때, 그들은 꼭 그것에 대해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며,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였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하여 그분은 가버나움과 벳새다와 고라신에 대해 이런 화를 내십니다. 아마 갈릴리 외에는 아무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로 와 시돈과 소돔 보다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졌느냐? 너희는 음부 곧 죽은 자의 나라로 던져 지리라. 이제 그 표현은 이사야서 14장 11절과 12절을 연상시킵니다. 그곳에서 바빌론 왕은 신이 되려 했고 죽은 자의 영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가버나움과 같습니다. 음, 당신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빛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음부로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부터 30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처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육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는 교수라는 뜻이다.

박사과정 학생들도 가르치고, 석사과정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심해주세요. 교육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또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의 손에 지혜를 살 수 있는 대가가 있습니까? 지혜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현명한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신론자였을 때는 내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지성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확실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들은 내가 무한한 하나님을 신뢰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일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으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과 7장에서 우리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또한 11장과 27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봅니다.

이런 것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관련해서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자료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앞서 집회서에서 벤 시라크(Ben Sirach)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지혜를 얻고 지혜의 멍에를 메고 큰 안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멍에는 일반적으로 동물이 끌었습니다. 아니면 아주 가난한 농부라면 멍에를 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멍에는 노예 제도와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때로는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교사들은 왕국의 멍에나 토라의 멍에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토라나 왕국에 대하여 이것이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지혜의 멍에라도 이것이 나의 멍에이니 너희가 메라. 여기서 예수님은 신성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처럼 그는 종종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서 6장과 16절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돌이켜 너희 영혼이 쉬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영혼이 쉬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안식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안식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음 장부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 매우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1회기 마태복음 10-11장입니다.